

“행복한 익산 완성할 것”

정현을 익산시장, 시장 3선 도전 ‘출사표’

정현을 익산시장이 3선 시장의 꿈에 도전한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직무정지에 돌입한 정현을 시장은 4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복한 도시 익산을 완성시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정현을 예비후보는 “지난 6년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환경·주거문제, 사회적 갈등 등 해결에 집중해 왔음을 피력했다. 재정 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청렴도 최고 등급 획득, 제3일반직업단지 분양 완료로 바탕으로 한 제5산단 건립 기반 마련 신청사 건립 추진, 익산역 복합개발 대기업 유치 성공 등의 성과를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행복 5대 비전 완성을 위해 “국제철도·청년 도시 완성하겠다”며 “국제철도시대 거점도시 호남권 최대 환승역에 대기업과 함께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 청년·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와 취·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산업을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농업·농촌 수도로 거듭나겠다”며 “제5산단과 그린바이오 허브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생태계 성장과 함께 식품산업 선도 전국 최초 마을자치연금 확대를 통한 행복수도 익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일상의 행복생활권을 보장하고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왕궁북수 지역 생태명품 힐링 숲 조성 등 자연친화적 명품주거 공간을 마련하겠다”면서 생태친화 명품도시 건설을 피력했다. 정 예비후보는 또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도시, 시민이 건강한 보건의료 행복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신후조리원 설립, 국립산재전문병원, 국립회귀질환센터 등 유치를 통한 의료행복도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보호 강화 및 청소년안전망 활성화를 위하여 4일 학교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다양한 정보 공유할 수 있어”

익산시 학교지원단, 교내 위기청소년 발굴·연계 ‘협력’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보호 강화 및 청소년안전망 활성화를 위하여 4일 학교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요 사업안내 ▲2021년도 학교연계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보고 ▲위기청소년 연계사례 발표 및 논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별 운영현황 공유 ▲청소년안전망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 또래관계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학교지원단은 관내 학교와 협조해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지원단은 관내 학교와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초·중·고 학교장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와 협력

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해학교폭력 예방 및 자아성장 감정조절, 대인관계능력 향상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지원단 임상호 위원장은 “학교지원단을 통해 교내 위기청소년들의 사례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위기청소년을 연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 안팎으로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 청소년이 건강하고 비탄적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852-1388)는 청소년 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어청도·개야도 LPG시설 구축

2022년 섬마을 사업 공모 선정

군산시는 어청도·개야도가 2022년 섬마을 단위 LPG(액화석유가스) 시설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낙후된 섬지역의 연료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LPG시설 구축사업 공모에 군산시 어청도(114세대), 개야도(219세대)가 최종 선정됐다. 그간 섬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연료 공급이 불안정해 동절기 난방 및 취사 중단의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섬마을에 직접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연료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섬주민들의 삶이 훨씬 편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료 수급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기존 난방의 유류비보다 저렴해 최대 25%까지 연료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노후된 난방시설을 교체하고 가스경보기와 타이머폭 등 안전장비를 갖추므로 주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지와 가장 먼 어청도는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 사업을 착수해 내년에 완료하고, 개야도는 오는

2023년에 착수해 2024년에 모든 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다. 김성태 어청도도장은 “그 동안 겨울만 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기름이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시고, 기름통, 가스통을 끌고 좁은 언덕길을 오르시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 일이다” 말했다. 한상봉 한민해양과장은 “섬 주민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모든 섬들의 연료 공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오택림 익산부시장 권한대행체제, 확대간부회의 첫 주재

익산시장 권한대행인 오택림 익산부시장은 4일 첫 번째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시정 현안을 직접 챙겼다. 오 권한대행은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시정 공백 없는 권한대행 체제, 중립적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고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권한대행은 “정책 및 현안 사업 추진 시 통제 기반 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오 권한대행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통제 기반 정책관리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행정에서는 정책과

통제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 직원이 정책 수요에 대응한 통제의 개선방안을 스스로 고민해 가며,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 통제에 기반한 객관적 과학적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권한대행은 “위드코로나 대면전환시대에 대비해 각 부서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시 1분기 신속집행 소비투자 목표액 1,131억원 대비 집행액이 1,160억원으로 102.6% 초과 달성을 이룬 것에 대해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이 지역경제 회복의 미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신속집행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청년 창업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개선, 농업인 소득증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오 권한대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선거중립과 관련하여 많은 기관에서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철저한 의무 이행을 지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명장’ 최고의 숙련기술자 공개 모집

군산시는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명장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해 2022년 군산시 명장 공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산시 명장’의 자격요건은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고, 현재 5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중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연 3명 이내에서 선발하게 된다.

지난해 3개 직종을 선정한 뒤 해당 직종의 명장을 모집했던 절차와 달리 올해는 다양한 분야의 명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 직종으로 확대 모집할 군산 특성에 맞는 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군산 명장 선정자가 대한민국 명장 신청과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명장 선정지종을 준용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절차를 거쳐 군산시 명장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군산=남현봉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체계적 지원 나서

익산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포탈 제공 기자재 지원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와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감면 등 금융 지원 혜택까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과 물가안정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위생과 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익산시가 현실심사와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당부’

익산시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주의의 당부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주체인 조합원을 모집하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공사나 분양가격, 건축 규모 등은 추후 조합이 결성된 후 총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마치 시공사가 정해진 것처럼 홍보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피해 사례로는 ▲과장·허위 광고로 인한 오인 ▲낮은 성공 확률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증가 ▲가입자에 불리한 계약서로 인한 탈퇴·환급의 어려움 ▲관련 자료 불부합 및 공개 불이행 ▲어려운 해산 절차 및 해산에 따른 투자 비용 회수 어려움 등이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